

## 한 · 중 대학생의 주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안옥희\*  
An, Ok-Hee

조영미\*\*  
Jo, Oung-Mi

학가\*\*\*  
Hao, Jia

#### Abstract

Today, we are living while interchanging with various countries in multilateral measures and residential culture have been changed while interchanging in the same manner. In order to becom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er in this environment, we must understand the housing viewpoint of residents in that country first.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obtain the useful material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 of Korea and China by comparing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A survey using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205 Korean students and 193 Chinese students (Chinese race) from Y University on a random sampling basis. The result of survey is as follows. First, as both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have a similar tendency on previous house type, current house type, and desired house typ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y are similar each other in the experience and preference of house type. Second,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sider <Function as a place for happiness and harmony of family> and <Function as a place for health and rest of family>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residence, bu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sider more functions of residence than Korean students. And, both Korean and Chinese students consider a living room as the most important space among housing spaces, but Chinese consider a private room more importantly than Korean. Thir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have stronger desire to possess houses, and desire to purchase houses with larger and more rooms at earlier time than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urth, when selecting the house, Chinese university students give a higher consideration in terms such as <construction company>, <maintenance>, <silence and secludedness>, <exterior design>, <veranda> and <scenic green area> than Korean university students. Fifth, satisfaction level of Korean students on current houses was average as a whole, and most Chinese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houses. Sixth, as both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have higher level of consideration in the items such as <safety>, <parking>, <security of private life>, <interior space>, <exterior design>, <scenic green area>, <area of room>, <number of rooms>, <room arrangement>, <interior facilities>, <transportation convenience> and <lighting and ventilation> compar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thought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items in housing planning.

Keywords : Housing Viewpoint, Chinese Students, Comparative Study

주요어 : 주거관, 중국유학생, 비교 연구

#### 1. 서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측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 또한 서로 교류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주거문화를 잘 이해한 주거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생활방식과 정치체제 등으로 인해 주거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주거는 양적인 공급만을 중심으로 집합주거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여 주거의 이미지를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주동형식, 다양한 배치패턴, 적극적인 외부공간의 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sup>1)</sup> 중국 역시 경제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주택을 고르게 배분하고자 집합주택을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근래에 들어서 특색 있고 개인

\*정회원(주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정교수

\*\*정회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김현지·서희숙·이상홍(2006), 한·중 현대 집합주거 주동형식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11), pp. 143-150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sup>2)</sup>

한편,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다양한 업종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분야의 진출은 극히 미미하고 그 성과도 매우 실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sup>

주택은 일반상품과 달리 그 나라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주거관) 또한 여러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주거관이라 하면 주택과 그 속에서의 주생활에 관한 개인이 갖는 생각을 말하며,<sup>4)</sup> 시대에 따라 그 사회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지역에 따른 환경의 영향과 사회계층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거환경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등 주거관을 파악하여 이를 계획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의 주거관을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주거환경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한국과 중국의 주거환경<sup>5)</sup>

우리나라의 주택은 2000년에 9749천호(단독주택 4269.3천호, 아파트 5479.7%)에서 2005년에 11226.2천호(단독주택 4263.5천호, 아파트 6962.7천호)로 증가하였는데,<sup>6)</sup> 단독주택은 오히려 줄어들고 아파트의 증가가 눈에 띈다.

자가집유 가구비율 또한 2000년에 44.3%에서 2005년에 51.0%로 증가하였다.<sup>7)</sup> 주택보급률은 전국을 기준<sup>8)</sup>으로 1995년 86.0%, 2000년 96.2%, 2005년 105.9%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1995년 76.7%에서 2000년 86.1%, 2005년 96.8%로 아직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은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주택을 국유화한 후 노동자에게 공유주택의 형태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현재 이러한 공유주택이 중국 도시주택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시장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1979년 개혁개방정책의 시행과 함께 주택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공유주택의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정부는 4,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도시지역의 주택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전국 도시의 주택 중 40% 이상은 주방이나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3,000만 m<sup>2</sup>는 주거에 부적합한 위험주택으로서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주택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1997년에 주택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21세기의 주력 산업화하기로 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10개년계획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① 도시지역의 1인당 주거면적을 2010년까지 18 m<sup>2</sup>로 확대, ② 연간 평균 3억3천만 m<sup>2</sup>씩 총 33억 5천억만 m<sup>2</sup>의 주택을 건설 ③ 기존의 불량주택과 노후주택을 개축하여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의 비율을 85% 이상으로 제고, ④ 80%의 주택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현대화한다.

### 2. 한국에서의 중국주거에 관한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주거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주거학회지와 대한건축학회지의 게재논문을 살펴 보았다. 주제에 <중국>을 포함한 자료는 한국주거학회지에는 9편, 대한건축학회지에는 111편이었다. 특히 대한건축학회에서는 1996년에 “중국의 건축”특집을 기획하여 중국건축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학술적 가치를 가지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정보제공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집기사, 서평, 여행기, 학술발표대회논문 등을 제외하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에 게재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주거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선정된 논문은 한국주거학회지 8편, 대한건축학회지 43편, 총 51편이었다. 특히 주택이나 마을, 도시 등 주거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사찰, 공연장, 건축교육 등)<sup>9)</sup>를 제외하면 중국주거에 관한 연구는 한국주거학회지 8편, 대한건축학회지 23편, 총 31편이었다.

이들 3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주거 연구의 동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주거 연구는 중국주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0)</sup> 조선족 주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11)</sup> 한국과 중국의 주거를 비교한 연구<sup>12)</sup>로 대별된다. 이들은 대부분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이며, 거주자 측면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대한건축학회지의 게재논문에는 거

2) 심우갑·강상훈·조재모(2000), 한·중·일 집합주택 주호평면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6(11), 53-62.

3) 최수용,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 12.

4) 정미란·안옥희(2001),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0.

5) 중국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과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중국 도시의 부동산 시장제도 형성과정과 시장구조>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 2005.

7) 국토해양부, 자가집유가구비율 현황, 2007.

8) 국토해양부, 연도별 주택보급률 현황, 2007.

9) 주택이나 마을 등 주거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연구는 <중국 동북부지역 불사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 및 중국 중원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中國 傳統公演施設의 歷史變遷과 建築特性에 關한 研究-中國 劇場 戲臺를 中心으로>, <중국의 대학 건축교육에 관한 연구>, <중국 고대 건축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 (I)-선대시대와 현대의 건축연장을 중심으로> 등 다수가 있다.

10) 중국주거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국 북경 시험원의 공간구성 특성>, <중국 북진성 개가족의 토주주택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11) 조선족 주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민가의 형식적 특성>, <중국 조선족 용흥촌의 마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 다수가 있다.

주자의 의식이나 행위에 주목한 연구는 전혀 없었으며, 한국주거학회지의 게재논문의 경우에도 특정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연구<sup>13)</sup>만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연구나 도면 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이거나 중국 현지에서 가서 조사한 현장조사연구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주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며, 거주자측면의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주택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sup>14)</sup>에 따르면, 중국 건설시장 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는 주택, 오피스 빌딩, 호텔 등 건축분야에 대한 우선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에 애로사항은 장기간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문화적 격차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재한외국인들의 수가 증가<sup>15)</sup>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비교문화연구의 맥락에서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가치관의 혼돈에 직면함에 따라 같은 동양권 국가이지만 한국의 가치관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sup>16)</sup> 따라서 향후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주거환경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국가의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에 필요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주거관을 파악함으로써 주거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Y대학교의 대학생 220명과 Y대학교에 유학 온 중국인 유

학생(한족) 20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였으며,<sup>17)</sup> 자료의 처리는 불성실하게 기입된 것을 제외하고 한국대학생 205명, 중국유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11월이다.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사항을 살펴보면<표 1>, 평균 가족수는 한국은 4.2명, 중국은 3.5명으로 나타났다.<sup>18)</sup> 이는 중국에서는 1자녀정책으로 한 가정에 한 자녀만 가지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한국보다 중국이 확대가족의 비율(21.5%)이 많아, 한국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보다 중국이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가족분위기도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가정 내 분위기에 한·중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한국보다 자녀수는 적으나, 3세대 가족형태의 확대가족의 형태가 많으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족 대화 및 화목함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 인구학적 사항

		N(%)	
구분		한국	중국
성별	남성	105(51.2)	101(52.3)
	여성	100(48.8)	92(47.7)
가족수	3명	26(12.7)	129(64.5)
	4명	129(62.9)	43(21.5)
	5명 이상	49(23.9)	19( 9.9)
	평균	4.2인	3.5인
가족형태	핵가족	186(90.7)	146(78.5)
	확대가족	19( 9.3)	40(21.5)
가족간 대화	대화를 많이 한다	80(39.0)	142(74.0)
	보통이다	113(55.1)	48(25.0)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12( 5.9)	2( 1.0)
가족 분위기	화목하다	133(65.2)	171(89.1)
	보통이다	68(33.3)	20(10.4)
	화목하지 않다	3( 1.5)	1( 0.5)

####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주거관이 형성되기까지는 4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는 <표 2><sup>19)</sup>와 같다. 즉 주거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로서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요소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체계이다. 이러한 주거관은 추상적 개념이지만 인간의 주거행동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주거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주거관은 <표 2>와 같은 단계를 거쳐 형성되므로 주거관을 이루는 한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기 보다

12) 한국과 중국의 주거를 비교한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평면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中國 延邊 朝鮮族과 漢族의 集合住宅 平面構成 比較 研究 -延吉市를 中心으로-> 등 다수가 있다.

13) 거주자에 주목한 연구는 <중국 용정지방 달라제 전통농가 작업행위 조사연구>, <중국 용정지방 달라제 전통농가 정기간과 생활행위 조사연구> 뿐이었다.

14) 김태황·강민석(2001), 중국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37,517명이며, 이 중 중국인(조선족, 대만인 제외)은 53,509명이다(통계청, 2005년 자료). 또한 재한 외국인의 직업은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47.1%, 결혼이민자 10.4%,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5.7%이다(경향신문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16) 김병희(2006), 한·중가치관의차이에 따른 국제광고표현 전략 연구, 광고연구, 제70호, pp. 9-40(재인용)

17) 연구대상인 Y대학교는 입학정원이 5천여명이다. 2008년 정규학위과정(학부, 대학원)에 있는 유학생은 학부 490여명, 대학원 240여명이며,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은 학부 470여명, 대학원 160여명이다. 본 연구대상인 중국유학생 193명은 모두 학부생이다.

18) 평균 가구원수는 우리나라도 1980년 4.54명, 1990년 3.71명, 1995년 3.34명, 2000년 3.12명, 2005년에 2.88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19) 신경주(2003), 주거학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는 주거관을 이루는 각 요소를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관에 관한 선행연구<sup>20,21)</sup>를 토대로 주거관을 파악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즉 설문지는 설문 대상자와 주거환경의 일반적 사항, 주거의식에 관한 항목, 주거의견에 관한 항목, 주거만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sup>22)</sup>되어 있다.

표 2. 주거관의 형성 단계

1단계	주ვის식 단계	- 주거관 형성의 잠재적인 마음상태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않음
2단계	주ვის견 단계	- 주ვის식이 의견의 형태로 표현 - 당면한 사실에 대해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나타남
3단계	주택이상 단계	- 단편적인 주ვის견이 계통적으로 묶여 나온 것
4단계	주요구 단계	- 주택이상 단계에서 형성된 주거관이 현실의 주생활과 모순이 있을 때 불만이 형성되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가 생성된다. 이러한 요구가 주생활 환경개선의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주거관으로 변해감.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백분율, T-test를 하였다. 주거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항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3$ , 주거에 대한 만족도 항목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06$ 으로 높게 나타났다.

#### IV. 결과 분석

##### 1. 주거의식

###### 1) 주거환경의 일반적인 사항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 3>과 같다.

현재의 주택형태는 한·중 모두 공동주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주택유형도 한·중 모두 공동주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평수는 한·중 모두 30평형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유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보다 좀 더 넓은 평수에 사는 비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유학생의 경우, 중국가정의 평균적인 경제수준보다 월등히 부유한 가정형편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유형태를 보면, 한·중 양국 모두 자가 소유가 많았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에 87.4%가 자가 소유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의 개념이 없으며, 집의 일부를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한 없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한국대학생의 경우 대도시에 거

주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국유학생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의 사용은 한·중 모두 혼자 사용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한국의 경우, 가구 당 평균 사용방수는 2000년에 3.4개에서 2005년에 3.6개로 증가하였으며, 주거의 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20.2 m<sup>2</sup>(6.1평)에서 2005년 22.8 m<sup>2</sup>(6.9평)로 증대하였다. 그리고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1인당 주거면적을 8.2평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23)</sup> 중국의 경우에는 1인당 주거면적(도시)이 1995년에 11.8 m<sup>2</sup>, 2000년 14.2 m<sup>2</sup>, 2005년 22.0 m<sup>2</sup>(예상)으로 증대하였다.<sup>24)</sup> 즉 도시의 경우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1인당 주거면적이 약간 작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N(%)

구분		한국	중국*
현재 주택유형	단독주택	42(20.5)	35(18.3)
	공동주택	161(78.5)	156(81.7)
이전 주택유형	단독주택	77(37.9)	72(37.7)
	공동주택	126(62.1)	119(62.3)
평수	20평형대 이하	54(27.6)	34(19.5)
	30평형대	78(40.1)	64(36.7)
	40평형대	43(21.9)	34(18.8)
	50평형대 이상	20(10.1)	44(25.2)
소유형태	집의 일부를 월세로	6( 2.9)	-
	집의 일부를 전세로	6( 2.9)	-
	집 전체를 월세로	6( 2.9)	5( 2.6)
	은행에서 빌려 월세로	-	16( 8.4)
	집 전체를 전세로	13( 6.3)	-
	자가(일부 세를 줌)	18( 8.8)	-
	자가(우리가족만 사용)	149(72.7)	166(87.4)
기타	7( 3.4)	3( 1.6)	
거주지역	농어산촌마을	10( 5.0)	8( 4.2)
	중소도시	61(30.2)	144(75.4)
	대도시	131(64.9)	39(20.4)
방 사용형태	나 혼자 사용	170(82.9)	163(84.5)
	공동으로 사용	35(17.1)	30(15.5)

\*유학생은 중국의 본인 집에 대한 사항이다

###### 2)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게 된 이유

현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표 4>, 한국대학생은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가 30.8%를 나타내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의 주택에서의 생활이 편리해서>, <나를 포함한 형제들의 학교문제>의 순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중국유학생은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와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가 20% 이상의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를 들고 있다.

20) 안옥희 · 정미란 · 김순경(1999), 대학생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67-78.

21) 정미란, 안옥희(2001),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1.

22) 중국유학생의 경우 현재의 거주하는 주거는 한국의 주택이므로, 본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이외의 항목은 중국에 있는 본인의 집에 대한 사항으로 물었다.

23) 국토연구원, '05년 주택수요조사.

24)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5계획 요강, 2001(재인용)

표 4. 현 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N(%)

거주 이유	한국	중국*
나를 포함한 형제들의 학교문제	21(10.4)	11( 5.7)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20(10.0)	31(16.1)
이사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17( 8.5)	12(6.3)
물려받은 집이라서	2( 1.0)	7( 3.6)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20(10.0)	42(21.9)
교통이 편리해서	14( 7.0)	15( 7.8)
현재의 주택에서의 생활이 편리해서	35(17.4)	23(12.0)
문단속과 집안관리가 안전해서	1( 0.5)	7( 3.6)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62(30.8)	41(21.4)
기타	9( 4.5)	3( 1.6)

\*유학생은 중국에 있는 본인 집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중 대학생 모두 주체적으로 현재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거의 기능

<표 5>에 제시한 7개 항목 중 주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중 양국인 모두 주거의 기능으로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1위, 2위로 들고 있어 그 경향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두 기능이 81.9%를 차지하여 압도적이었으나, 중국은 이 두 기능이 50.7%를 차지하여 절반정도였고, 이외의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교육 및 가계계승 장소로서의 기능>은 한국은 1.5%에 불과하나 중국은 17.4%를 나타내었고, <부부생활과 자녀양육 장소로서의 기능> 또한 한국은 4.9%이나 중국은 1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5. 주거의 가장 중요한 기능 N(%)

주거의 기능	한국	중국
외적 악조건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	18( 8.8)	47( 9.4)
생업장소로서의 기능	5( 2.5)	13( 2.6)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86(42.2)	150(29.9)
가족교육 및 가계계승 장소로서의 기능	3( 1.5)	87(17.4)
부부생활과 자녀양육 장소로서의 기능	10( 4.9)	83(16.6)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	81(39.7)	104(20.8)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의 장소로서의 기능	1( 0.5)	17( 3.4)

\*다중응답으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이 주거의 기능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의견

1) 주택에 대한 의견

주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14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빈도를 정리하였다<표 6>.

8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한국대학생은 <가족들의 단란장소>, <몸과 마음의 휴식장소>, <반드시 내 집 장만>이었으며, 중국유학생은<반드시 내 집 장만>, <몸과 마음의 휴식장소>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의 주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항목은 <생활주기에 맞춘 이사>, <집보다 자가용 구입>, <가족들의 단란장소>, <대도시 거주> 순으로, 이들 항목은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반드시 내 집을 마련해야한다는 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거계획 시에는 자가 취득방법에 대한 홍보나 자가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6. 주택에 대한 의견 N(%)

항목	한국	중국	비고*
반드시 내 집 장만	164(80.0)	176(91.2)	-11.2
집보다 다른 곳에 투자	32(15.6)	13( 6.7)	+ 8.9
마당 있는 집	30(14.6)	16( 8.3)	+ 6.3
집보다 자가용 구입	69(33.7)	8( 4.1)	+29.6
전통가옥	46(22.4)	46(23.8)	- 1.4
같은 지역고수	124(60.5)	109(56.5)	+ 4.0
생활주기에 맞춘 이사	116(56.6)	51(26.4)	+30.2
대도시 거주	142(69.3)	90(46.6)	+22.7
교외 거주	69(33.7)	66(34.2)	- 0.5
집보다 취미와 레저 중시	120(58.5)	75(38.9)	+19.6
집은 잠자는 곳	37(18.0)	18( 9.3)	+ 8.7
유행에 따른 실내장식	114(55.6)	106(54.9)	+ 0.7
가족들의 단란 장소	190(92.7)	124(64.2)	+28.5
몸과 마음의 휴식장소	199(97.1)	160(82.9)	+14.2

\*한국과 중국유학생의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며, +는 한국대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을, -는 중국유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낸다.

또한 여기에서 특히 <가족들의 단란 장소>에 대한 한·중 대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전술한 주거의 기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한국대학생들은 가족 단란장소로서의 주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유학생들은 주거의 기능으로 가족단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국대학생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있어 한·중 양국의 대학생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므로 집에서의 생활시간이나 생활행위 등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를 통하여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은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나, <반드시 내 집 장만>항목은 반대로 중국유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이 한국대학생보다 많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의 내 집 마련 희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택에 관한 희망사항

주택에 관한 희망사항을 알아 본 결과<표 7>, 이사 시 희망주택유형은 한·중 양국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한국대학생의 공동주택 희망비율이 중국유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이 월등히 많음을 고려할 때 양국인 모두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중 대학생 모두 이전의 주택유형, 현재의 주택유형, 희망주택유형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주택에 관한 희망사항 N(%)

구분		한국	중국
이사 시 희망주택유형	단독주택	88(43.1)	97(50.3)
	공동주택	116(56.9)	96(49.7)
적당한 주택의 크기(평)	20평형대 미만	15( 7.5)	15( 8.4)
	30평형대	80(39.5)	50(33.5)
	40평형대	62(30.5)	39(30.2)
	50평형대 이상	46(22.7)	65(36.3)
적당한 방의 개수	2개 미만	8( 3.9)	21(11.7)
	3개	108(53.2)	48(26.8)
	4개	75(36.9)	42(23.5)
	5개 이상	12( 5.9)	68(38.0)
	평균	3.48개	4.4개
결혼 후 예상 자가 구입 시기	1년 이내	18( 9.0)	90(48.9)
	2-5년 이내	103(51.3)	79(42.9)
	6-10년 이내	63(31.4)	15( 8.2)
	11년 이상	17( 8.5)	-
	평균	6.41년	2.6년

주택의 크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30평형대를, 중국은 50평형대 이상을 적당한 주택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적당한 방의 개수는 한국은 3개(평균 3.48개), 중국은 5개 이상(4.44개)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이 더 큰 주택과 많은 방의 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예상하는 자가 구입 시기는 한국인은 6.41년, 중국인은 2.6년으로 나타나, 한국대학생이 중국유학생보다 자가 구입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는 결혼 전 14.2%, 결혼 후 85.8%이며, 평균 결혼 후 10.4년 걸리므로,<sup>25)</sup> 실제로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한국평균보다는 예상되는 자가 구입 시기를 훨씬 짧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방을 가진 주택을 더 빨리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주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본 연구대상의 중국유

학생이 유학생이므로 중국의 일반대학생보다 부유한 경제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유학생이 아닌 중국 본토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

주택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을 선택하게 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표 8>.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간에 약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67.7%이며, 다음으로 침실1이 17.2%를 나타내었으며, 이 외 다른 공간은 모두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중국은 거실을 1순위로 생각하나, 그 비율이 40.2%에 머물며, 침실1(21.7%), 침실2(20.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한국대학생은 거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중국유학생은 거실뿐만 아니라 개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공간 순위 N(%)

구분	한국	중국
거실	128(62.7)	76(40.2)
부엌	12( 5.9)	8( 4.2)
식당	1( 0.5)	5( 2.6)
욕실	4( 2.0)	4( 2.1)
화장실	7( 3.4)	7( 3.7)
응접실	1( 0.5)	2( 1.1)
침실1	35(17.2)	41(21.7)
침실2	1( 0.5)	38(20.1)
침실3	1( 0.5)	1( 0.5)
마루	3( 1.5)	-
마당(발코니)	5( 2.5)	7( 3.7)
현관	1( 0.5)	-
창고(수납공간)	-	-
차고(주차장)	5( 2.5)	-

4)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26항목에 대하여 <매우 고려한다> 5점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점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26항목의 평균 고려정도를 보면, 한국은 평균 3.92점을, 중국은 4.17점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즉 한·중 대학생 모두 주택선택 시 여러 항목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며,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좀 더 깊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인에게서 4점 이상의 높은 고려정도를 나타낸 항목을 보면, <안전성>, <주차>, <사생활보장>, <내부공간>, <방의 면적>, <방의 개수>, <방의 배치>, <내부시설>, <교통편리>, <편의시설>, <채광환기>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주택건설을 할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중국유학생들은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25)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년.

표 9.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

평가항목	한국		중국		t-값
	평균	SD	평균	SD	
근린시설	3.74	.987	3.91	.936	-1.740
학 군	3.81	1.007	3.86	.987	-0.418
생활교육	3.50	1.099	3.84	1.008	-3.135***
안 전 성	4.51	.763	4.68	.735	-2.059*
관 리 비	3.85	.868	3.99	.803	-1.620
건설회사	3.65	1.016	4.32	.880	-6.320***
주 차	4.17	.928	4.10	.910	0.731
유지관리	3.67	.942	4.35	.765	-7.445***
조용, 한적함	3.91	.987	4.36	.858	-4.414***
사생활보장	4.21	.927	4.29	.878	-0.834
친구, 친척거리	3.12	1.015	3.68	.920	-5.556***
내부공간	4.14	.859	4.53	.662	-4.696***
외부디자인	3.87	.902	4.19	.769	-3.722***
베 란 다	3.77	.954	4.10	.908	-3.267**
풍치녹지대	3.85	.997	4.19	.835	-3.546***
방의 면적	4.16	.763	4.35	.675	-2.449*
방의 개수	4.27	.830	4.23	.763	0.437
방의 배치	4.11	.749	4.60	.723	-6.226***
내부시설	4.55	.841	4.66	.679	-1.263
교통편리	4.48	.811	4.45	.739	0.357
편익시설	4.29	.868	4.27	.849	0.259
채광환기	4.45	.767	4.61	.760	-2.049*
투자전망	3.79	1.016	3.78	.933	0.053
매매용이	3.66	1.104	3.69	1.054	0.239
사회적 지위	3.11	1.091	3.64	.953	-5.124***
동네평판	3.37	1.019	3.74	1.092	-3.239*
평균	3.92	.398	4.17	.325	-5.561***

\*p<.05, \*\*p<.01, \*\*\*p<.001

한적함>, <외부디자인>, <베란다>, <풍치녹지대>항목도 4 점 이상의 높은 고려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여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한국에서 건설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생활교육>,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한적함>, <친구, 친척거리>,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풍치녹지대>, <방의 배치>, <사회적 지위>항목에서 p<.001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베란다>항목에서는 p<.01수준으로, <안전성>, <방의 면적>, <채광, 환기>, <동네평판>항목에서는 p<.05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 보다 주택선택 시 이들 항목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거만족도

1) 전반적인 만족도

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3.48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중국인은 4.17점으로 나타나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N(%)

구분	한국	중국
	대단히 불만	4( 2.0)
불만	20( 9.8)	13( 6.8)
보통	71(34.6)	69(35.9)
만족	93(45.4)	82(42.6)
대단히 만족	17( 8.3)	24(12.5)
평균(SD)	3.48(.855)	4.17(.842)

2)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표 9>의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과 같은 26항목으로 알아보았다. <매우 만족한다> 5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까지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양국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방의 면적>, <투자전망>, <매매용이>항목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군>, <조용, 한적함>, <친구, 친척거리>, <방의 배치>, <교통편리>, <사회적 지위>항목에서는 p<.01 수준으로, <생활교육>, <건설회사>, <주차>, <풍치녹지대>, <동네평판>항목에서는 p<.05 수준으로

표 11.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항목	한국		중국		t-값
	평균	SD	평균	SD	
근린시설	3.39	.999	3.55	.953	-1.499
학 군	3.54	1.009	3.84	.903	-3.133**
생활교육	3.42	.896	3.66	1.001	-2.302*
안 전 성	3.72	.983	3.83	.974	-1.008
관 리 비	3.35	.842	3.51	.994	-1.567
건설회사	3.30	.904	3.55	1.011	-2.502*
주 차	3.34	1.161	3.57	1.023	-1.986*
유지관리	3.49	.914	3.53	1.002	-0.437
조용, 한적함	3.48	1.197	3.81	1.020	-2.768**
사생활보장	3.55	1.046	3.69	.979	-1.406
친구, 친척거리	3.31	1.043	3.67	.979	-3.336**
내부공간	3.28	.982	3.71	1.007	-3.868***
외부디자인	3.19	.942	3.62	.956	-4.356***
베 란 다	3.35	.958	3.46	1.091	-1.051
풍치녹지대	3.36	1.122	3.64	.982	-2.563*
방의 면적	3.44	1.006	3.81	.987	-3.728***
방의 개수	3.74	1.068	3.73	1.002	0.153
방의 배치	3.60	.947	3.90	.924	-3.137**
내부시설	3.94	1.070	3.90	.911	0.424
교통편리	3.50	1.306	3.88	.981	-2.961**
편익시설	3.74	1.140	3.90	.925	-1.424
채광환기	3.96	.979	3.88	1.006	0.739
투자전망	3.17	.947	3.59	.945	-4.589***
매매용이	3.19	.914	3.55	1.013	-3.650***
사회적 지위	3.30	.821	3.57	.965	-3.022**
동네평판	3.41	.807	3.60	.990	-2.091*

\*p<.05, \*\*p<.01, \*\*\*p<.001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 보다 이들 항목의 만족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린시설>, <생활교육>, <관리비>, <건설회사>, <주차>, <친구, 친척거리>, <외부공간>, <베란다>, <풍치 녹지대>, <투자전망>, <매매용이>, <사회적 지위>, <동네 평판>은 한국과 중국유학생 모두 각국의 평균만족도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주거계획을 할 경우에는 이들 항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공간>, <방의 면적>은 한국인의 평균만족도 이하의 항목이며, <유지관리>는 중국인의 평균만족도 이하의 항목이므로, 각국에서 주거계획을 할 때에는 이들 항목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사항과 만족도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와 세부항목의 만족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12>.

그 결과, 평균 고려정도와 평균 만족도는 한·중 모두

고려정도가 만족도보다 컸다. 즉 한국과 중국유학생들이 주거환경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정도는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보다 낮아 불만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평균의 차이보다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전성>, <주차>, <사생활보장>,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풍치녹지대>, <방의 면적>, <방의 개수>, <방의 배치>, <내부시설>, <교통편리>, <채광환기>항목은 한국과 중국 양국인 모두에서 만족도보다 고려정도가 컸다. 즉 이들 항목은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가 큰데, 그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므로 주거불만의 요소가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주거계획 시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대학생들은 <관리비>, <편의시설>, <투자전망>, <매매용이>항목에서, 중국유학생들은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한적함>, <베란다>항목에서 만족도보다 고려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각국에서 주거계획을 할 때에는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V. 결 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측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 또한 서로 교류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거환경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거주자의 주거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의 주거관을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관과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주거환경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Y대학교의 대학생 205명과 중국유학생(한족) 193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대상자와 주거환경의 일반적 사항, 주거의식에 관한 항목, 주거의견에 관한 항목, 주거만족에 관한 항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시기는 2008년 11월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한국인은 16.0%와 84.0%, 중국인은 18.3%와 81.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현 주택으로 이사 오기 이전의 주택유형 또한 양국인 모두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사 시 희망주택유형은 한·중 양국인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즉 한·중 대학생 모두 이전의 주택유형, 현재의 주택유형, 희망주택유형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주택유형의 경험과 선호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한 주거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이 주거의 기능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인 모두 주택공간 중 거

표 12. 고려정도와 만족도

평가항목	한국			중국		
	고려도	만족도	비교*	고려도	만족도	비교*
근린시설	3.74	3.39	-0.35	3.91	3.55	-0.36
학 군	3.81	3.54	-0.27	3.86	3.84	-0.02
생활교육	3.50	3.42	-0.08	3.84	3.66	-0.18
안 전 성	4.51	3.72	-0.79	4.68	3.83	-0.80
관 리 비	3.85	3.35	-0.50	3.99	3.51	-0.48
건설회사	3.65	3.30	-0.35	4.32	3.55	-0.77
주 차	4.17	3.34	-0.83	4.10	3.57	-0.53
유지관리	3.67	3.49	-0.18	4.35	3.53	-0.82
조용, 한적함	3.91	3.48	-0.43	4.36	3.81	-0.55
사생활보장	4.21	3.55	-0.66	4.29	3.69	-0.60
친구, 친척거리	3.12	3.31	+0.19	3.68	3.67	-0.01
내부공간	4.14	3.28	-0.86	4.53	3.71	-0.82
외부디자인	3.87	3.19	-0.68	4.19	3.62	-0.57
베 란 다	3.77	3.35	-0.42	4.10	3.46	-0.64
풍치녹지대	3.85	3.36	-0.49	4.19	3.64	-0.55
방의 면적	4.16	3.44	-0.72	4.35	3.81	-0.54
방의 개수	4.27	3.74	-0.53	4.23	3.73	-0.50
방의 배치	4.11	3.60	-0.51	4.60	3.90	-0.70
내부시설	4.55	3.94	-0.61	4.66	3.90	-0.76
교통편리	4.48	3.50	-0.98	4.45	3.88	-0.57
편의시설	4.29	3.74	-0.55	4.27	3.90	-0.37
채광환기	4.45	3.96	-0.49	4.61	3.88	-0.73
투자전망	3.79	3.17	-0.62	3.78	3.59	-0.19
매매용이	3.66	3.19	-0.47	3.69	3.55	-0.14
사회적 지위	3.11	3.30	+0.19	3.64	3.57	-0.07
동네평판	3.37	3.41	+0.04	3.74	3.60	-0.14
평균	3.92	3.46	-0.46	4.17	3.69	-0.48

\*고려정도보다 만족도가 크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개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한·중 양국의 대학생의 주거의식은 그 경향은 유사하나, 세부적인 사항에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의 크기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30평형대를, 중국인은 50평형대 이상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적당한 방의 개수는 한국인은 3개(평균 3.48개), 중국인은 5개 이상(4.44개)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결혼 후 예상하는 자가 구입시기는 한국인은 6.41년, 중국인은 2.6년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크고, 많은 방을 가진 주택을 더 빨리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넷째, 주택선택 시 고려할 사항 2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한·중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대학생보다 중국유학생들이 주택선택 시 이들 항목에 대한 고려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은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한적함>, <외부디자인>, <베란다>, <풍치녹지대>항목에 대하여 한국대학생보다 높은 고려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여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현재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한국대학생은 보통정도이고, 중국유학생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국유학생의 만족정도가 한국대학생보다 높았다.

여섯째, <안전성>, <주차>, <사생활보장>,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풍치녹지대>, <방의 면적>, <방의 개수>, <방의 배치>, <내부시설>, <교통편리>, <채광환기>항목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만족도보다 고려정도가 컸다. 즉 이들 항목은 주택선택 시 고려정도가 큰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므로 주거불만의 요소가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주거계획 시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대학생들은 <관리비>, <편의시설>, <투자전망>, <매매용이>항목에서, 중국유학생들은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한적함>, <베란다>항목에서 만족도보다 고려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각국에서 주거계획을 할 때에는 이들 항목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중 대학생의 주거관은 주택유형의 경험이나 선호경향은 비슷하나, 주택소유나 희망하는 주택의 크기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이나 만족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으므로, 각국의 주거계획 시에는 그 나라 거주자의 주거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 현지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중국유학생의 주거관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1. 경향신문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2. 고도임·윤복자·박남희·류영순(1997),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정지간과 생활행위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1-12.
3. 김경표(1996), 중국 동북부지역 불사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 및 중국 중원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85-94.
4. 김병희(2006), 한·중 가치관의차이에 따른 국제광고표현 전략연구, 광고연구, 제70호, 9-40(재인용)
5. 김성우·이원석(2001),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11), 117-124.
6. 김승제(2002), 중국 조선족 용흥촌의 마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8), 33-40.
7. 김종영(2004), 중국 연변 조선족과 한족의 집합주택 평면 구성 비교연구 -연길시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4), 55-63.
8. 김준봉·김성우·이훈·박은정(2000),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민가의 형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7), 79-86.
9. 김태항·강민석(2001), 중국 건설시장의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0. 김현지·서희숙·이상홍(2006), 한·중 현대 집합주거 주 동형식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1), 143-150.
11. 리광철·이상현(2008),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평면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9), 37-46.
12. 박남희·고도임(1998),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작업 행위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3), 119-131.
13. 박창준·한동수·임종엽(2004), 중국 전통공원시설의 역사변천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중국 극장 회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 103-114.
14. 박한철·부척량(1999), 중국의 대학 건축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4), 89-96.
15. 심우갑·강상훈·조재모(2000), 한·중·일 집합주택 주호평면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11), 53-62.
16. 신경주(2003), 주거학, 수화사.
17. 안옥희·정미란·김순경(1999), 대학생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67-78.
18. 이왕기·최효승(1990), 중국 고대 건축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I)-선대시대와 현대의 건축연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4), 105-113.
19. 이일영(2007), 중국 도시의 부동산 시장제도 형성과 시장 구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69, 291-323.
20. 이자영(2006), 모녀의 주거관 세대 전승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정미란, 안옥희(2001), 한일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1.
22. 최수용(1997),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 최장순·홍대형(1998), 중국 복건성 객가족의 토루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65-175.
24. 한필원(1997), 중국 북경 사합원의 공간구성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1), 193-202.
2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접수일(2009. 4. 27)  
수정일(1차: 2009. 7. 17)  
게재확정일자(2009. 7. 21)